

전남도 어장 규제 완화 ... 양식어장 크게 늘듯

현재 6887곳 16만4892ha로 전국의 62% 차지

바다 황폐화·경관 침해·해상 운송 지장 우려도

정부의 어장 개발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전남도내 양식어장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어업인 소득 증대에는 기여하겠지만, 양식 어장이 일부지역의 경우 포화상태에 있는데다 바다 황폐화, 경관 침해, 해상운송 지장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어장이용 개발계획 지침'으로 패류 및 해조류의 개발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김, 전복, 굴 등에 대한 신규어장을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완도 보길·노화·소안도 등

시설 밀집해역의 정치망어업, 어류 가두리 양식, 패류 가두리양식 등의 어장 개발은 제한되지만, 전체 어장의 10% 이내에서 패류 및 해조류 양식어장 개발 제한은 완화된다. 다만 패류 가두리식의 경우 해양수산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0년 이후 연평균 23%씩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김 신규 양식어장 5000ha를 해남, 진도, 신안 등의 해역에 개발하고,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전복 가두리양식장을 진도, 신안 등의 해역에 신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양식어장의 경우 현재 도내에 4만 9987ha에 설치돼 있으며, 김 수출액은 지난해 3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꾸준히 양식장 면적과 생산량이 늘고 있는 인기 품종이다.

이 외에도 전남도는 갯벌 바닥식 굴, 다시마, 미역, 톳 등 새로운 어업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신규 어장을 추가 개발할 방침이다.

지난 2014년 말 기준으로 전남도의 양식어장은 모두 6887곳, 16만4892ha로, 전국(26만5118ha)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해조류가 2454건(7만9032ha)으로 가장 많고, 이어 패류(2808곳, 2만6971ha), 어류(179곳, 833ha)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나친 양식 어장 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지나친 어장 설치로 바다 황폐화가 가시화되고 있는데다 섬관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문객들에게 경관 침해 요소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해상 운송과 관련된 어장과 대립·마찰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어장이 많은 것은 사실이며, 향후 해양수산부, 시·군, 주민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 신규 어장 개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오는 3월까지 각 시·군으로부터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하고, 4월 개발계획을 승인한 뒤 7월 신규 어장에 대한 면허 처분을 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시도지사협 "행정기관 명칭서 '지방' 빼달라"

20대 총선 공약요구사항 결정

전국 시장과 도지사들이 특별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 이름을 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서울지방경찰청을 서울경찰청으로 명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는 2일 오후 그랑서울에서 제34차 총회를 열고 지방분권을 위한 제20대 총선 공약 요구 사항을 결정했다.

시·도지사들은 '지방'의 개념을 '중앙'의 하위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는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현행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사용되는 '지방' 명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굳이 '지방'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 국세청, 경찰청, 검찰청, 보훈청, 병무청 등의 기관 명칭에서부터 '지방'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제1회 한·중 지

사·성장회의 개최와 지방자치회관 설립 문제도 논의됐다.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한국 시·도지사들과 중국 성장 간의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제1회 한·중 지사·성장회의가 인천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상징적 대표공간으로 서울시와 세종시에 지방자치회관을 설립, 서울과 세종에 각각 운영 중인 시·도 사무소의 공동입주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회의는 총선 공약 요구 사항으로 자치제도 개편 6개 과제, 지방재정확충 4개 과제,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강화 3개 과제, 지방분권 개헌 등 4대 분야 14개 과제를 대상으로 개별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당당에 건의하기로 했다.

회의는 또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기구·정원 조제 결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위해 지방교부세법·국회법·지방자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 국제농업박람회 기본계획서 정부 제출

(재)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가 국내박람회와 국제박람회를 하나로 통합해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알릴 '2017국제농업박람회' 준비에 본격 나섰다. 조직위는 2일 "2017년 개최 예정인 국제농업박람회 정부 승인을 위한 '2017국제농업박람회 기본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6월 말까지 제출된 기본계획서의 타당성조사를 거쳐 7

월 정부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 승인 시 국비 및 인력을 지원받아 박람회 성공 개최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위는 지난해 12월 국내박람회와 국제박람회를 통합해 2년마다 국제박람회로 개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7국제농업박람회는 통합 후 처음 개최되는 박람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단독주택 쓰레기 종쳐서 걷는다

거점수거서 타종수거로

전남도가 단독주택 일반쓰레기를 수거방식을 기존 '거점 수거'에서 '타종 수거'로 변경하기로 했다. 일정 장소에 거주민이 쓰레기 봉투를 놓아두면 거둬가는 대신 쓰레기 수거차량이 종소리나 안내방송 등으로 수거사실을 알린 뒤 쓰레기를 내놓게 하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2일 "단독주택지역 쓰레기 투기가 증가하면서 민원이 발생해 올해부터 일부 시·군을 상대로 '타종 수거'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22개 시·군은 단독주택 주민들이 일반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버리면 1주일에 2~3차례 청소차량이 쓰레기를 거둬가는 거점수거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쓰레기를 수거한 이후 주민들이 쓰레기를 내놔 다음 수거 때까지 골목길과 마을 도로변 등에 방치되면서 미

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여름이면 악취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수거 차량이 타종 또는 방송을 통해 운행시간을 알리고 주민들이 집앞에 쓰레기를 내다버리는 타종식으로 쓰레기 수거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 집앞에 쓰레기를 내다버리기 때문에 청소차량이 다음 수거 때까지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타종식은 거점수거 처럼 청소차량이 1주일에 2~3차례 수거하는데 수거장소가 내 집앞이란 점을 고려하면 수거 시간에 맞춰 쓰레기를 내다 버려야 하는 약간의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11개 시·군, 11개 마을에서 오는 4월부터 타종 수거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아셈문화장관회의의 관료들 한자리에 2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에서 열린 제7차 아셈(ASEM)문화장관회의의 준비를 위한 국장급회의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아셈문화장관 회의는 오는 6월 광주에서 열린다. /최혜민기자 choi@kwangju.co.kr

아셈관료들, 광주서 '6월 문화장관회의' 준비 점검

오는 6월 열리는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 문화장관 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관료들이 광주에 모여 준비태세를 점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는 2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제7차 아시아-유럽(ASEM) 문화장관회의 준비 국장급회의를 열었다. '문화와 창조경제'를 주제로 6월에 열리는 문화장관회의를 준비하는 실무회의 성격의 이날 회의에는 53개 아셈 회원국 고위 관료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대주제인 '문화와 창조경제'를 비롯해 '첨단기술과 창조산업의 미래', '전통문화 유산과 창조경제', '창조산업과 국가간 협력'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문화장관회의의 안건과 일정, 세션별 의장국, 8차 문화장

관회의 개최국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오는 6월 중 문화전당 등 광주 일대에서 '문화와 창조경제'를 주제로 열리는 문화장관 회의의 기간에는 장관회의, 고위급회의, 워크숍, 문화투어 등 행사들이 펼쳐진다.

ASEM은 1994년 싱가포르의 제안으로 1996년 3월 태국 방콕에서 출범해 상대적으로 연계가 부족했던 아시아, 유럽을 잇는 지역 협력체로 자리 잡았다. 2년마다 아시아와 유럽에서 정상회의를 교대로 개최하며 장관회의, 고위관료회의, 조정국회의 등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다.

올해 문화장관회의는 광주에서, 교육장관·교통장관 회의는 라트비아에서, 외교장관회의는 룩셈부르크에서 열린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대학 특허기술·연구 성과 사업화 광주에 '연합기술지주회사' 설립

2018년까지 130억 투자

광주에서 대학이 보유한 특허기술,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는 '연합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된다.

광주시는 올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50억원을 투자하고, 국비 3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지역 대학에서 50억원을 현금 또는 현물을 투자, 총 사업 규모는 1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와 전남대, 조선대 컨소시엄은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15년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기관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원을 확보

한 바 있다.

'연합기술지주회사'는 대학 또는 출연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출자해 독자적인 신규 회사 설립, 외부 기업과의 합작벤처체제를 설립, 기존 기업의 자본 인수 등의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다.

광주테크노파크에서 법인 설립과 운영을 총괄하며, 광주지식재산센터는 특허기술 가치 평가를,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는 기업 창업 지원을 맡는다. 이들 기관들은 역할을 분담하고 협조 네트워크를 구축, 기술사업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당뇨망막병증

당뇨병으로 말초혈관 장애가 발생해 시력이 감소하는 눈의 합병증입니다. 당뇨환자는 정밀안저 검사를 통해 당뇨망막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치료 방법
중증성 당뇨망막병증이 심해 안구 내 망막출혈이나 유리체에 출혈이 발생한 경우 레이저를 이용해 치료하거나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맞은편 눈노안발달을 찾으세요

진료내과 소아과/라식/라섹/백내장/녹내장/안과/안경/노안

신세계백화점 **백운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증-68156호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